

2025년 10월 21일

보도자료

이 자료는 10월 22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21일(화) 16: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변화하는 기후, 변화가 필요한 제주경제 : 산업별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결과

□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구도),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은 10.21일(화) 최근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가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별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변화하는 기후, 변화가 필요한 제주경제 : 산업별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

- 제1주제 : 이상기후 증가가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욱 교수)
- 제2주제 : 기후변화가 제주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
- 제3주제 : 기후환경 변화 속 제주형 신성장동력산업 발전 전략
(제주연구원 강영준 연구위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 붙 임 : 1. 「변화하는 기후, 변화가 필요한 제주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1부
2. (별 첨) 세미나 발표 원문 1부. 끝.

문의처 : 기획금융팀 과장 최종윤, 조사역 좌유진

Tel : (064)720-2504, 2506 Fax : (064)720-2521 E-mail : jeju@bok.or.kr

“한국은행 제주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jeju>)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붙임)

「변화하는 기후, 변화가 필요한 제주경제」 세미나 주요 내용

[제1주제] 이상기후 증가가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상욱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검토배경) 제주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폭염·집중호우·강풍 등 이상기후 빈도 증가가 관광객 활동 및 관광업체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와 그 파급경로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할 필요
- (분석방법) 통계청 서비스업조사(2016~2022년)에 포함된 도내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기온·연간강수량 등 전반적 기후변화, 폭염일수·집중강수일수·강설일수 등 극한기상 현상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이상기후 증가가 관광업체의 성과(매출과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분석 결과)
 - 연간강수량 및 폭염·집중호우 등의 증가는 관광업 매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다만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온난다습화로 인해 관광 패턴이 수익성 높은 실내 관광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이며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상대적으로 대규모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으며 규모가 큰 대형시설 업종(숙박, 골프, 카지노 등)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 강설, 강풍이 관광객의 실질적인 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가 관광지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정책적 시사점)
 - ① 영세 관광업체 맞춤형 지원 강화 : 기후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보험제도 및 긴급지원 등 현실적 대책 필요
 - ② 실내 관광서비스 개발 및 연계 : 기후 악화 시 이용 가능한 대체관광 콘텐츠 발굴 및 통합 안내 강화
 - ③ 1차산업과의 연계성 고려 : 관광서비스업 경영성과 및 관광객 수요가 1차산업에서 생산된 식재료들의 공급, 가격, 품질 및 청정이미지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기후변화 대책 마련 시 1차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
 - ④ 기상 악화 시 보상기준 명확화 : 관광업계의 기상리스크 관리지침 수립으로 관광객 신뢰 확보
 - ⑤ 장기대응력 제고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관광업 중장기 전략 및 친환경 서비스 모델 구축 필요
 - ⑥ 위기관리체계 강화 : 관광객 대상 실시간 기상 및 안전 정보 제공과 세부 지역별 취약성에 따른 대응 체계 확립 필요

[제2주제] 기후변화가 제주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권오상 교수 (서울대학교)

□ (검토배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 강수량 변동성 확대, 폭염·가뭄 등 이상기후 빈도 증가로 인하여 제주지역의 농업생산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업부문은 제주지역 부가가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물류·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큼

□ (분석방법)

- 기후요인이 생산성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추정
 - ① 기상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물별 생산성 변화를 추정하고 ② 작목선택모형(ASM)을 이용해 생산성 변화가 작목 구성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뒤 ③ 응용일반균형(CGEM)을 활용하여 기후변화가 생산성 충격을 통해 농업·가공업·서비스업 등 제주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분석결과)

- 기상·기후변화는 식량작물과 전통적인 채소 및 과실류의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만감류와 아열대작물의 경우 평균기온 상승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고온일수 증가는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측치 수 부족 등으로 그 관계를 통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 만감류와 아열대작물의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6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다만 만감류와 아열대과일의 열피해를 사양관리를 통해 조절하고 평균기온이 증가하는 장점을 살릴 경우 오히려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는 농업의 외생변수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과학적 계량분석과 정책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 이에 제주는 탄소중립·스마트농업·품목다변화 등 다중 전략을 통해 기후적응형 농업모델지역으로 도약해나갈 필요

(세부전략) ①스마트농업 강화: ICT기반 자동화 및 정밀관수 기술 확대, ②품목다변화: 아열대과수 및 기후내성작물 도입, ③기후리스크 금융: 재해보험·보증제도 확충, ④지역 적응계획: 제주형 기후농업 지도 및 중장기 시나리오 구축

[제3주제] 기후환경 변화 속 제주형 신성장동력산업 발전 전략

강영준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 (검토배경) 제주 경제는 관광 및 1차 산업에 편중된 구조로 인해 사드사태, 코로나 19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계를 노출해왔으며 최근에는 인구 순유출 및 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며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와 동시에 제주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 전통 산업인 관광 및 1차 산업이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COP28 합의, IPCC보고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이 등장하면서 도내 모든 산업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이 필수과제가 되고 있음

- (신성장 전략) 외부 충격에 강하고 국제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성장동력 발굴
 - ①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도약 : 단기적으로는 수소버스 등 도내 모빌리티 전환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그린 암모니아·메탄올 생산 플랜트를 유치하고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여 그린연료 벙커링 허브로 발전해 나갈 필요
 - ② 항공우주·UAM(도심항공교통) 산업 고도화 :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거점으로 우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위성데이터를 농업 및 해양분야에 활용하는 제주기후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관광형 UAM 사업을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추진하여 '무탄소 관광 모빌리티' 브랜드를 구축
 - ③ 청정 바이오 산업의 첨단화 : 감귤박·해조류 등 농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 섬유 등 고부가가치 '그린 산업 소재' 개발로 R&D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BECCS(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개척
 - ④ 넷제로(Net-Zero) 관광·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 호텔, 리조트 등 주요 관광 시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제주 RE100 관광'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ESG 경영을 중시하는 글로벌 MICE 수요와 관광객을 유치. 친환경 농법의 탄소 저장량을 과학적으로 측정·인증하는 '제주 카본 파밍(Carbon Farming)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흡수 크레딧'을 확보·판매하여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

- (시사점 및 과제) 그간 산업성장 정책이 부처·계획별로 분절되어 실효성이 약화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고 에너지·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시너지를 창출할 필요
 - 특히 ESG·탄소중립과 연계된 신산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재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도내 대학·기업·지방 정부가 연계된 '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제주를 명실상부한 '기후친화형 산업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

(참고)

「기후변화와 제주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 개요

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상공회의소·제주연구원 공동 개최
지역경제세미나

변화하는 기후, 변화가 필요한 제주경제 : 산업별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2025. 10. 21.(화) 14:30

장소: 엠버퐁어힐 호텔 한라홀(2F)

주최 |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상공회의소  JRI 제주연구원

초청의 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은 최근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별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경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박구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연구원장 유영봉

행사 일정

개회식	14:30 ~14:50	개회사 한국은행 제주본부 박구도 본부장
		환영사 제주상공회의소 양문석 회장 제주연구원 유영봉 원장
		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주제발표	14:50 ~16:25	발표 1 이상기후 증가가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욱 교수)
		발표 2 기후변화가 제주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
		발표 3 기후환경 변화 속 제주형 신성장동력산업 발전 전략 (제주연구원 강영준 연구위원)
휴식	16:25~16:45	
종합토론	16:45 ~17:30	좌장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
		토론자 제주대학교 강주현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선임연구위원 제주테크노파크 김기주 산업기획팀장
폐회	17:30	